STATE OF NEW YORK | EXECUTIVE CHAMBER

ANDREW M. CUOMO | GOVERNOR

즉시 배포용: 2012년 5월 7일

CUOMO 주지사, 미국내 최초로 장애인 및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개혁안 발표

연약한 뉴요커들이 학대받지 않도록 예방하고, 조사하며, 기소하는 새 치안 센터(Justice Center)제안

오늘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장애인 및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내 가장 강력한 규범 및 관례를 확립하기 위한 새 법률을 발표했습니다. 이 Cuomo 주지사의 법률로 뉴욕주가 뉴욕주에서 운영되고 공인되거나 인가된 설비 및 프로그램내 수 백 만 명의 뉴요커들을 보호하는 방법을 바꿀 이니셔티브인,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분들의 보호를 위한 새 Justice Center가 창설될 것입니다.

그 Justice Center에는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 학대를 조사하고 형사상 범죄의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혐의를 기소할, 특수 검사 및 감찰관 (Special Prosecutor and Inspector General)이 있습니다. 또한, 이 센터는 숙련된 전문가들에 의해 운영되는 24/7 핫라인, 장애인 학대 관련 모든 보고서를 추적하고 기록하는 주 전역에 걸친 종합적인 데이터베이스와 장애인 또는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분들을 심하게 학대하여 다시는 장애인 및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불들과 일하지 못하게 될 근로자들의 주 전역에 걸친 등록을 포함할 것입니다.

이는 너무 오랜 동안 받아야 할 보호와 정의를 받지 못한 1 백 만 명 이상의 장애 및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뉴요커들의 시민권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라고 Cuomo 주지사는 말했습니다.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분들의 보호를 위한 Justice Center의 창립은 가장 학대받기 쉬운 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미국내 가장 강한 규범과 관례를 뉴욕주에 적용할 것입니다. 저는 주 의회가 이 법안을 통과시켜 뉴욕주내 장애인 및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분들이 새로운 수준의 보호와 서비스를 받게 할 것을 촉구합니다."

주 의회 다수당 대표 Dean G. Skelos는: "주 정부의 보호 아래 있는 분들에 대한 학대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를 고려하여 주지사는 뉴욕주의 가장 연약한 시민들을 보호하고, 이들의 가족과 친지 및 사랑하는 분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사려 깊은 개혁안 패키지를 제안했습니다. 저희들은 정신 건강관련 주 의회 위원회의 의장인, 주 상원의원 McDonald의 지도 아래 이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 주지사 및 주 하원과 협력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주 의회 의장 Sheldon Silver는: “한 사회의 특징에 대한 최고의 척도는 그 사회가 가장 연약한 시민들을 얼마나 잘 보살피고 보호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작년 주 의회는 뉴욕주 전역의 그룹홈 (장애인 공동 생활 가정) 및 단체에서 일어나는, 발달 장애를 가진 분들에 대한 학대를 조사하는 주 전체에 걸친 일련의 청문회를 실시했습니다. 주지사는 발달 장애를 가진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 절실히 필요한 책임을 이 시스템에 부여하여 학대를 근절시킬 계획의 윤곽을 보여주었으며, 저희들은 제안된 법률의 매우 중요한 목표를 지지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주지사의 연약한 분들 관련 특별 고문 Clarence Sundram은, “오늘 Cuomo 주지사는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 뉴욕주가 미국내 가장 종합적인 기준을 설립하는 제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역사적인 법률은 주지사가 뉴욕주의 가장 연약한 커뮤니티 중 하나를 지지하는 선도자임을 입증합니다. 이 이니셔티브는 통과된다면, 뉴욕주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1백 만 명 이상의 뉴요커들을 보호하는 방법을 바꿀 수 있도록 해 줍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보건부 장관 Jim Introne은: “35년전 Clarence Sundram은 Carey 주지사가 사인한 Willowbrook 동의서에 따라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분들을 보호하는 뉴욕주의 시스템을 개혁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오늘 Cuomo 주지사에 의해 제안된 개혁안은 대단히 중요한 사안으로, 뉴욕주를 연약한 분들을 가능한 최대 보호하고자 하는 지도자적 위치로 다시 되돌릴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시민권의 옹호자로 잘 알려져 있으며, 이 혁신적인 이니셔티브는 저희의 가장 연약한 분들을 위한 보호 수단을 제공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발달 장애 서비스 State Directors의 National Association 사무 총장 Nancy Thaler는, “Cuomo 주지사가 제안하는 역사적인 개혁안으로 뉴욕주는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분들 및 장애인을 보호하는 데 국가적 선도자가 될 것입니다. 지능 및 발달 장애인들을 위한 공공 서비스를 증진시키고자 노력하는 협회의 사무 총장으로서, 저는 Cuomo 주지사가 이 사안에 지도자적 역할을 하여 매우 기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작년에 뉴욕주내 운영되고 공인되거나 인가된 설비 및 프로그램에서 일하는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거나 장애인 뉴요커들의 학대와 관련하여 10,000건 이상의 진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뉴욕주는 이 학대 노동자들에 대한 불평을 추적하여 조사하거나 처벌하는 일관되고 종합적인 표준을 갖춘 적이 없습니다.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분들을 보호하고자 Cuomo 주지사가 제안한 Justice Center는 다음 6개 관청에 의해 운영, 공인, 또는 인가된 기관 및 제공 기관에 대한 심각한 학대에 대한 불평을 추적하고, 조사할 주요 책임을 가집니다: 보건부 (DOH), 정신 건강부 (OMH), 발달 장애인부 (OPWDD), 아동 및 가족 서비스부 (OCFS), 알코올 및 약물 중독 서비스부 (OASAS)와 주 교육부 (SED). 또한, Justice Center는 적격의 비영리 단체에 임명될 Federal Protection and Advocacy and Client Assistance 프로그램을 제외한, 장애인들을 위한 보호 및 변호의 질적인 면과 관련한 위원회(Commission on Quality of Care and Advocac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의 모든 기능 및 책임을 흡수합니다.

Korean

제안된 Justice Center의 기타 구성 요소 및 책임을 다음과 같습니다:

- Special Prosecutor and Inspector General의 사무 총장과 숙련된 조사관, 변호사 및 관리자들. Justice Center의 법률 집행부는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거나 장애가 있는 분들에 대한 학대를 기소하는 지방 검사와 같은 권한을 가집니다.
- 학대 사례가 법 집행에 즉각 보도되고 철저하고 효과적으로 조사되도록 교육 받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주 전역에 걸친 24/7 핫라인 신설.
- 심각한 학대 행위를 한 노동자들이 장애인 및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분들과 일하는 어떤 지위에도 다시 고용되지 않도록 할 기록부 관리.
- 학대에 대한 입증된 진술에 관한 모든 징계 절차에서 주를 대표함.
- 조사자들을 훈련시키는 데 사용되는 조사 및 필요 조건의 공통 기준 만들기.
- 특별한 도움이 필요하거나 장애가 있는 분들과 같이 일하는 모든 불들이 서명 동의해야 하며 이에 따른 책임을 지는 기본 윤리 지침을 포함한 행동 강령의 수립.
- OMH, OPWDD, OASAS 및 OCFS에 의해 운영, 인가, 또는 공인된 기관이나 제공 기관에서 일하는 신원 조사가 필요한 종업언, 자원 봉사자 또는 컨설턴트 등 모든 사람에 적용되는 범죄 기록의 심사 및 평가를 포함한 신원 조사 과정의 통합.
- 중앙 기록 보고서, 조사 결과, 취해진 시정 조치의 형태, 학대 및 학대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패턴 및 경향의 검토 결과, 제안된 시정 조치 및 교육 결과를 포함한, 전년도내 한 일에 대한 주지사 및 주 의회에 연차 보고서 제출하기.

뿐만 아니라 Cuomo 주지사의 제안된 법률은 다양한 법률과 규제내 혼동되고 일치하지 않은 학대에 대한 정의를 복지 사업 (human services) 시스템에 적용된 하나의 일관된 기준으로 대체될 것입니다.

그 법률로 장애가 있거나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분들을 도와드리는 뉴욕주에 의해 인가되거나 공인되어 주 정부에 의해 운영되지 않는 기관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새로운 레벨의 투명성이 신설될 것입니다. 이 단체는 그들의 고용인에 대한 학대와 관련해 FOIL에 기초한 투명성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주지사가 제안한 법률은 또한, 장애가 있거나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분들의 복지를 위협한 데 대한 형사 처벌을 증가시키고, 주에 의해 운영, 인가, 또는 공인된 기관에 근무하는 이 분들 모두 성범죄의 희생자임을 증명하는 검사의 권한을 강화시킬 것입니다. 현행법상 장애가 있거나 특별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의 복지를 위협하는 범죄는 A급 경범죄, E급 중죄, 2년 반에서 7년의 형을 사는 최고 형을 포함한 D급 중죄로 분류됩니다. 주지사의 제안으로 증명하기 더 쉽고 기타 3 범죄 – E급, D급 및 5년에서 15년의 형을 사는 최고 처벌을 받는 C급 중죄 –로 발전할 새 경범죄가 신설됩니다. 게다가, 그 제안은 주거 시설의 개인은 그 시설의 직원과 성관계를 맺는 데 동의할 수 없음을 포함하여, 검사가 성적 행위가 합의에 의한 것임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뉴요커들은 다음 웹사이트에서 Justice Center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www.Justice4SpecialNeeds.com

주지사의 입법은 연약한 사람들에 대한 주지사의 특별 고문 Clarence Sundram에 의해 작성된 특별 보고서, *The Measure of a Society: Protection of Vulnerable Persons in Residential Facilities Against Abuse and Neglect*로 아웃라인된 권고사항에서, 일부, 발전되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다음 웹사이트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http://www.governor.ny.gov/assets/documents/justice4specialneeds.pdf

###

아래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